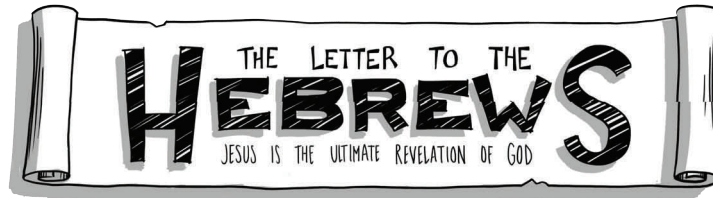


# 히브리서 Hebr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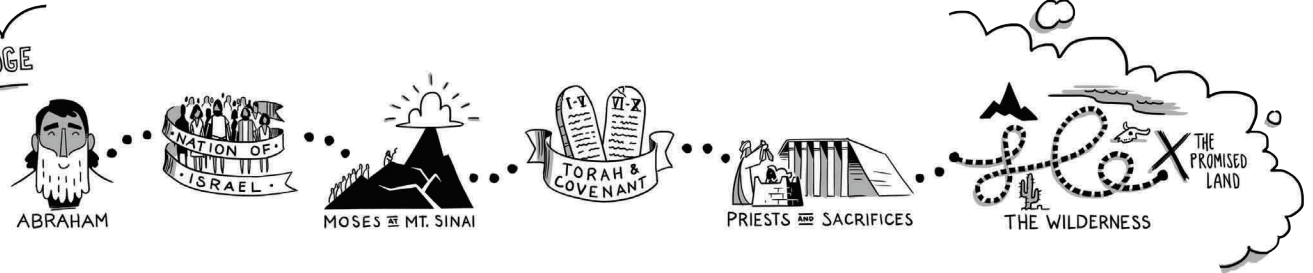


**AUTHOR: ?**

- PAUL ?
- BARNABAS ?
- APOLLOS ?

**AUDIENCE: ?**

THROUGH KNOWLEDGE OF THE OLD TESTAMENT SCRIPTURE



## 히브리서의 배경 및 구성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익명의 저자가 쓴 편지로, 사람들은 오래 동안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 바나바 혹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했었지만, 실제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2장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편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이며, 어디 살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수신자들이 구약성경을 잘 안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라라고 불리는 성경 첫 다섯 권을 꿰고 있다고 봅니다. [모세오경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모세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이끌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일과 또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한 일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독자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을 보면, 수신자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며, 그래서 책 이름도 히브리서라고 붙였을 것입니다. 또한 10장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꺾박 받고, 심지어는 투옥되었다는 근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과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그 믿음마저도 저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편지의 목적과 구성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짧은 서론 뒤에 네 개의 섹션이 이어지며, 저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 속 주요 인물과 사건들에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 i. 예수님은 먼저 토라에 있는 천사들과 비교됩니다. (1-2 장)
- ii. 둘째로 모세 그리고 약속의 땅과 비교됩니다. (3-4 장)
- iii. 셋째로는 제사장과 멜기세덱과 비교되고, (5-7 장)
- iv. 마지막으로 언약 안에 있는 희생제물들과 비교됩니다. (8-10 장)

저자가 이 모든 대조들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뢰와 헌신을 드릴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둘째 목적은 독자들에게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신실하게 남아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섹션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봅시다.

### 1.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 하나님

예수님을 높여드림으로 서론의 도입부가 시작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 1:1~2a).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전의 모든 방법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 1:3a).

이 비유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유사한 예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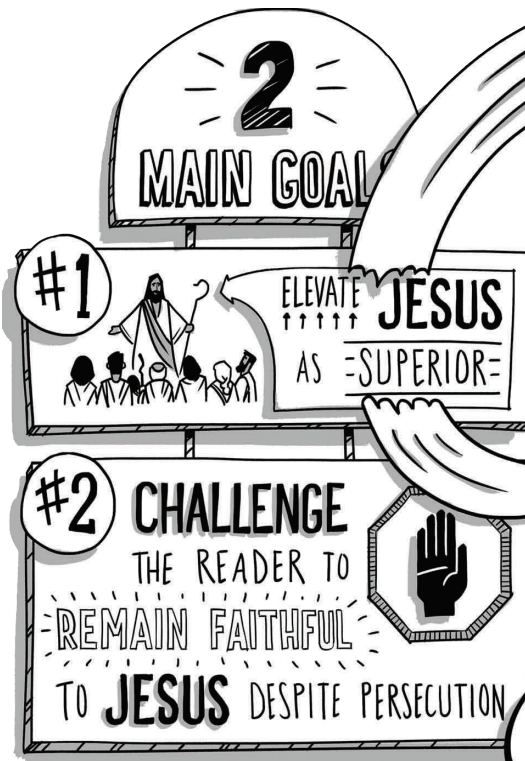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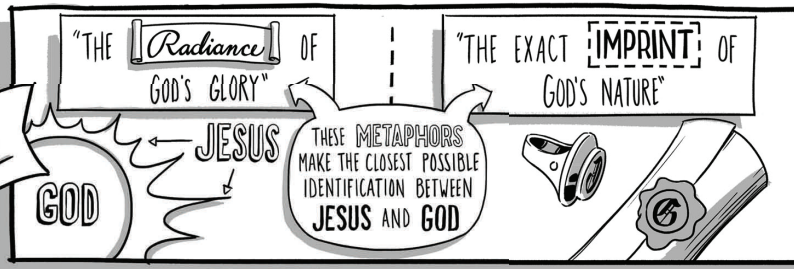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치 태양의 광채와 같고, 인장 반지로 찍어낸 날인 자국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편지 전체가 이처럼 모든 것 위에 높여지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 2. 예수님과 천사들의 비교 (1~2장)

첫 섹션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합니다.

**1:1-3**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ANCESTORS IN MANY DIFFERENT WAYS,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IN **HIS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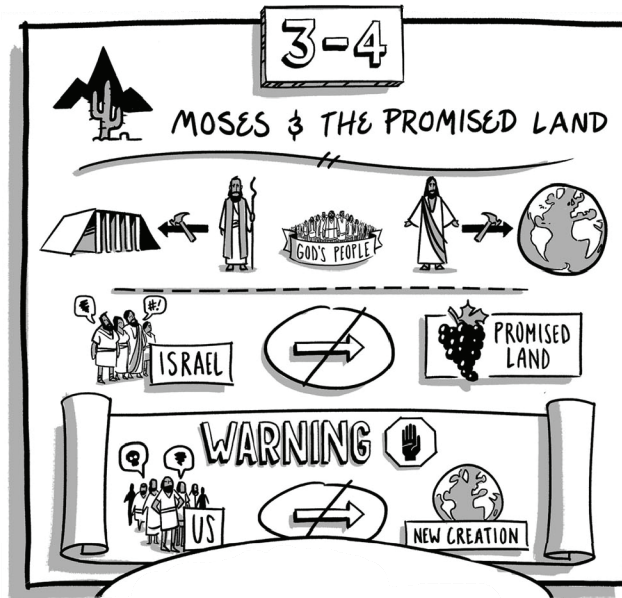


뜬금 없이 "웬 천사들과 비교?"라며 이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신명기 33:2절 말씀을 근거로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시나이 산에서 천사들에 의해 모세에게 전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메시지가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메신저들보다 또한 천사들에 의해 전해진 토라보다 더 뛰어나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에 얼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보다 지극히 높은 예수님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고난 당하고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겸손을 봅니다. 예수님이 긍휼하심으로 몸소 우리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에 동참하셨기 때문입니다.

### 3. 예수님과 모세의 비교

다음으로 저자는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장막을 세운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그분 안에서는 성막 정도가 아니라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를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할 기회를 놓쳤는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면, 우리가 그를 반역하는 일은 얼마나 더 위험한 일일까요? 우리도 또한 광야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며, 장차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4. 예수님과 제사장들의 비교

5장부터 7장에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아론 계열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나 죄를 덮기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 역시 도덕적으로 흠 많은 사람들이어서, 모든 사람의 죄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무엇인가가 더 필요했고, 저자는 바로 예수님이 더 필요한 그 무엇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최고의 제사장이지만,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셨습니다.



멜기세덱은 고대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또한 시편 110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왕이 제사장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최고 제사장이자 왕이십니다. 그분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중보자보다 우월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섹션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니,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 5. 예수님과 동물의 희생제물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의 마지막 비교로 넘어가 봅시다.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성전에서 드러지는 모든 동물의 희생제물보다 우월한 궁극적인 희생이 되는 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희생제물은 매일 같이 끊임없이 드러져야 했고, 해마다 속죄일에도 드러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단번에 모두를 위해 드리셨고, 그것은 세상을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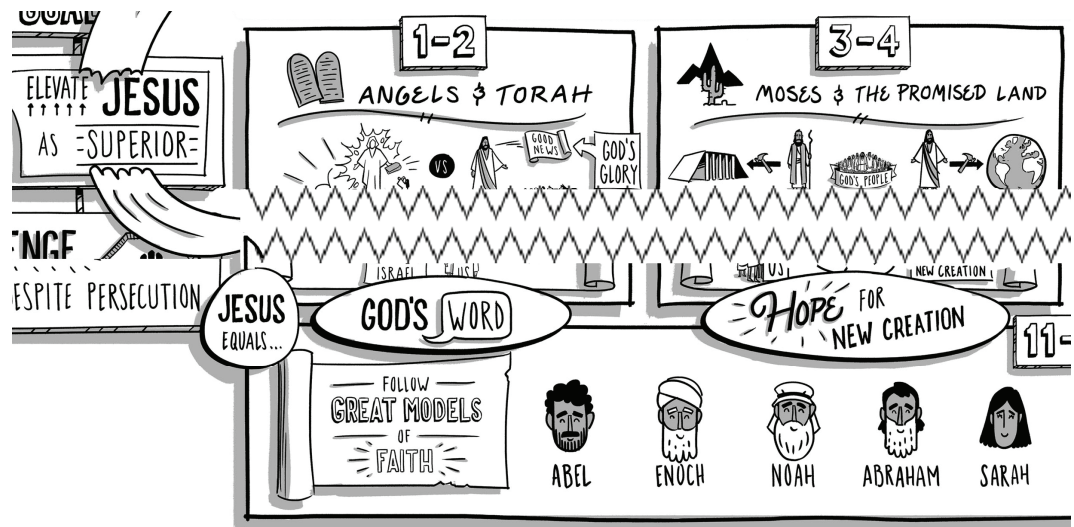
그래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의 제안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것이며, 선지서에서 예고된 새언약의 토대이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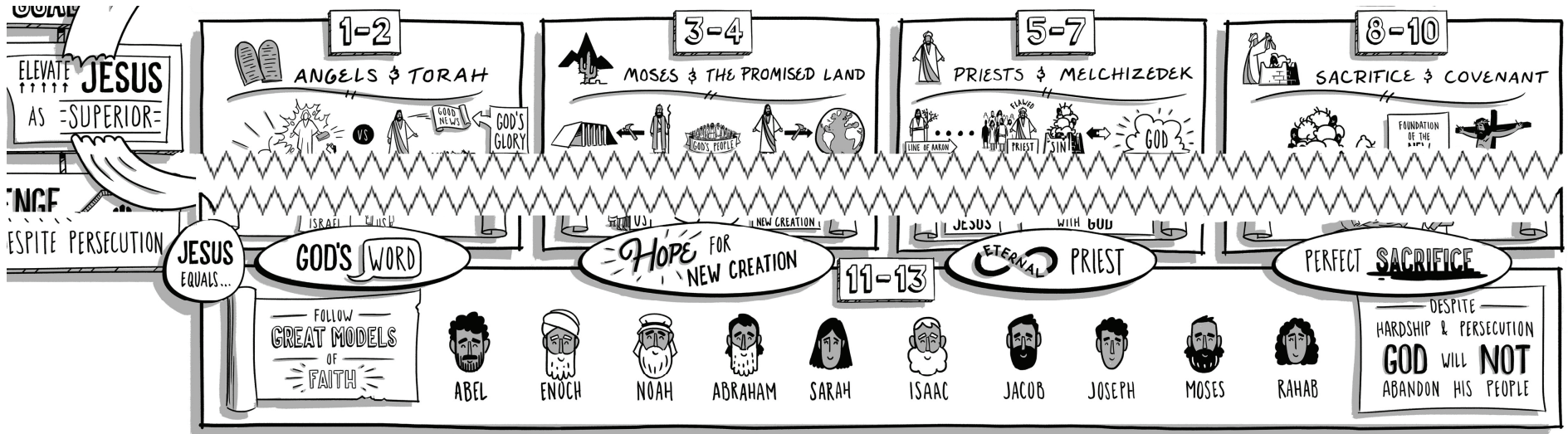
### 6. 최종 권면

이처럼 저자는 이 모든 대조를 통해 예수님을 높였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크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발견했고, 새창조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완벽한 희생제물이십니다.







이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된 모든 위대한 신앙의 모범들을 따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히 쓴 권면의 말’이라고 한 바, 편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기본적인 사고의 흐름입니다.

추가로 이 편지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될 팁을 두어 개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구약 성경을 거의 한 절 건너 한번 씩일 정도로 인용하는데,



그 때마다 잠깐 멈추고, 그 참고구절을 찾아 원래의 맥락에서 읽어보십시오. 때로는 뜻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알지 못할 모든 종류의 멋진 연관성을 보게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값어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경고 메시지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들로 우리가 불편하게 되겠지만, 바로 그렇게 불편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들을 통해 이 편지의 더 큰 목적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궁극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 Extra Tips

#1 LOOK UP OLD TESTAMENT QUOTATIONS (THERE ARE A LOT)

#2 THE POINT IS TO FEEL A BIT UNCOMFORTABLE, BUT NOT AFRAID

# THE LETTER TO THE HEBREWS

JESUS IS THE ULTIMATE REVELATION OF GOD



### AUTHOR: ?

- PAUL?
- BARNABAS?
- APOL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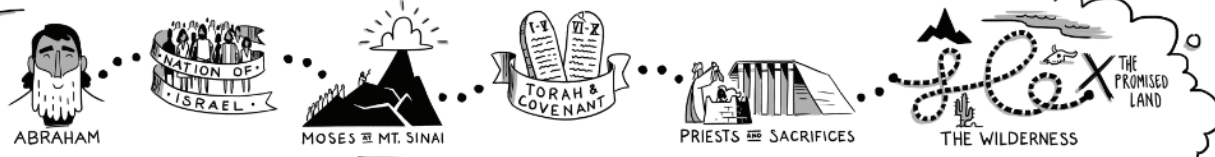
→ APOSTLES → JESUS

### AUDIENCE:

• SEE 10:32-34

PERSECUTION & IMPRISONMENT

THROUGH KNOWLEDGE OF THE OLD TESTAMENT SCRIPTURE



### 2 MAIN GOALS

1:1-3 IN THE PAST GOD SPOKE TO OUR ANCESTORS IN MANY DIFFERENT WAYS,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IN HIS SON

"THE Radiance of GOD'S GLORY" → JESUS  
"THE EXACT 'IMPRINT' of GOD'S NATURE" → JESUS

THESE PARTICIPATIONS MAKE THE CLOSEST POSSIBLE IDENTIFICATION BETWEEN JESUS AND GOD

### Extra tips

#1 ELEVATE JESUS AS SUPERIOR

#2 CHALLENGE THE READER TO REMAIN FAITHFUL TO JESUS DESPITE PERSECUTION

#### 1-2 ANGELS & TORAH

SEE DEUTERONOMY 33:2

ANGELS & TORAH

WARNING

GOD'S HUMILITY

GOD'S GLORY

#### 3-4 MOSES & THE PROMISED LAND

ISRAEL

PROMISED LAND

WARNING

HOPE FOR NEW CREATION

#### 5-7 PRIESTS & MELCHIZEDEK

PRIESTS & MELCHIZEDEK

WARNING

ETERNAL PRIEST

#### 8-10 SACRIFICE & COVENANT

SACRIFICE & COVENANT

WARNING

PERFECT SACRIFICE

#1 LOOK UP OLD TESTAMENT QUOTATIONS (THERE ARE A LOT)

#2 THE POINT IS TO FEEL A BIT UNCOMFORTABLE, BUT NOT AFRAID



— DESPITE —  
HARDSHIP & PERSECUTION  
GOD WILL NOT  
ABANDON HIS PEOPLE